

시선

사설

차기 총장, 새 희망 제시  
기대해도 좋은가

대학알리미의 올해 마지막 공시가 10월 30일 발표됨에 따라, 예정된 110개 세부항목 모두가 공개됐다. 이번 10월 공시자료까지 짚어봤을 때 우리학교의 교육과 연구 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뚜렷하다.

우선 교육여건에서는 ‘강좌당 학생 수용 규모’ 문제가 눈에 띈다. 비록 전임교원의 수업담당 비율이 상승했지만, 소형 강의가 지속적으로 줄고 대형 강의가 늘어나는 추세는 학습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수강인원이 늘어난 강좌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피드백이 적어지고, 토론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문의 탁월성을 강조해 온 우리학교의 교육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나 화상강의 인프라,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역시 의미 있는 변화는 엿보이지 않는다.

연구 부문에서는 교내 연구비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교외연구비 수혜실적도 소폭 개선되었지만 다른 상위권 대학과의 격차는 너무 커 보인다. 물론 교수 개인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이를 격려하고 견인해낼 수 있는 대학본부의 활동 역시 필수 조건이다. 교수의 연구실적이 경향적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대학의 연구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의 공시까지 우리학교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문제 해결’이다. 사실상 교내 연구비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 대형 강의가 늘어나는 것 등은 재정문제가 불거진 뒤에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가 그야말로 ‘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재정과 관련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보기 힘들다. 하루아침에 재정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다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의 내용을 통한 대책은 ‘절약’이지 ‘해결’이 아니다. 단순화하면 재정을 최대 수준으로까지 줄여, 문제를 잠시 진정시킨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라면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랍는데 있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낡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보다 진작시킬 수 있는 물질 토대인 ‘재정’이 지난 한 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 내년에는 어떤 전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지를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구성원이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역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대학알리미 공시 내용 몇 개를 가지고 너무나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편린들을 모아보면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마침 차기 총장 선임이 이뤄졌다. 차기 총장이 11월 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즈음에는 무언가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게 관촬을 것인가. 많은 구성원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15최고 글로벌 대학평가  
우리학교 500위권

미디어 여론동향 | 2014. 10. 27~10. 3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국캠 멀관앞 대자보와 외대 대자보의 내용’(2014.10.29)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김동근 학생의 1인 피켓 시위에 대해 가슴 아픈 행동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또 한 김동근 학생을 비판하며 양성평등이 아닌 다성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총여학생회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내태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다성평등을 강조하며 글을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홈페이지 계정도용 사건으로 드러난 온라인 현실

정보시대 걸맞은 ‘경희’돼야

이승연 기자  
(leesy0317)



유엔(UN) 브로드밴드위원회는 2014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29억 명에 도달해, 전 세계 사람 중 4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190개 국가 중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성인인구의 하루 평균 모바일 사용시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하철에서 무가지를 읽는 모습은 보기 어렵고,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손에 자리하고 있다. ‘정보화시대’가 아닌 정보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학교의 태도는 옛날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도용 사건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도용된 관리자 계정으로 올라온 글들은 황당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대처는 4시간이 걸려서 ‘글을 삭제’하는 것이었고, 외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됐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번 사건의 원인 탓이었다.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했다”는 정보지원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었다. 발달하는 해킹프로그램에 발맞춰 보안 절차가 번거로울 정도로 많아지는 시대흐름에 비춰볼 때, 사건의 원인이 단순한 비밀번호라니! 다

헝스럽게도 홈페이지 관리자 ID의 권한이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관리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도용된 ID가 다른 관리자, 예를 들어 학교에 등록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응이 늦었던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학교 측은 도용된 ID를 통해 올라온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해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출판문화원에 소속된 보안 담당 직원이 없어서 보안업체와 연결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이 게시글을 발견한 직후 보안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개발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휴일이 겹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보안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비교적 단순한 계정 도용문제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학교의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학교가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사건 이후 보안에 신경 쓴 조치들이 그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거대한 ‘온라인’ 속 경희를 운영하는 학교에 걸 맞는 예산배정도 필요하다. 보안뿐만 아니라 우리학교가 논의했던 온라인 강의든, 지난 제1577호에서 우리신문이 이야기했던 E-BOOK 이든 개선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아니, 최소한 모바일 화면으로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제대로 보이길 바라는 것조차 욕심일까.

마무리했다. 댓글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장영운 교수가 지난 24일 대한소화기학회 제2차 평의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장영운 교수,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선임/헬스경향, 2014.10.27) 임기는 1년이다. 장 교수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된 위장관 질환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암발생에 관여하는 한국인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위암환자 직계가족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발생의 중요한 인인자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제20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우수구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9차 유럽소화학회에서 톱 포스터에 선정,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2011~2012년판’에 등재되는 등 국내외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8일 미국의 유명한 학교 평가 전문매체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주,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 4개 대륙 49개국을 대상으로 대학 순위를 평가해 ‘2015 최고 글로벌 대학들’이라는 제목으로 500위권 대학 명단을 발표

했다.(세계 500위 대학중 韓 11개뿐... 中 28개·日 17개/문화일보, 2014.10.29) 평가 결과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학이 11개 포함됐다. 우리학교는 100점 만점 중 27.5점을 획득해 500위권 대학에 포함됐다.

우리학교와 삼성전자가 30일 국제캠퍼스 르네상스홀에서 양 기관의 동반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경희대-삼성전자, 산학협력 체결 및 평화콘서트 개최/머니투데이, 2014.10.30)

이번 협약식은 조인원 총장, 이승한 국제부총장,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 등 우리학교 관계자와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삼성전자주식회사 DS(Device Solution) 부문 소속 우수 임직원의 경희대학교 겸임교원 위촉 ▲경희대학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삼성전자주식회사 DS부문 유휴재원 내 실습기자재 및 장비 기증·지원 ▲삼성전자주식회사 DS부문 임직원 재교육을 위한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설·강사 및 프로그램의 이용 및 운영 ▲양 기관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애정’ 어린 관심이  
좋은 대학을 만든다

세시봉

김윤철 <보도팀장>



프로야구가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7년 연속 프로야구 관중 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포스트시즌 티켓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야구가 절정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구단의 성적과 선수의 활약에 울고 웃는 이들도 늘어간다. 그렇지만 팬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울고 웃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팬들의 요구는 ‘팁’을 움직이기도 한다.

얼마 전 ‘한화 이글스’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해 이슈가 됐다. 이 과정에서 한화 팬들은 ‘사상 최초로 구단이 아닌 팬들이 선임한 감독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화 팬들은 한화 그룹 본사 앞에서 김성근 감독의 선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결국 소원은 이뤄졌고, 최근에는 한화 팬이 자다가도 웃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자다가도 ‘성질’이 뻗치는 팬도 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 팬이다. 선수단과 프런트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결국 팬들은 ‘야구하기 싫으면 둘 다 고마 관두빠라’고 1인 시위 중이다. 구단은 애써 무시하는 중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팬이 없으면 구단은 무의미하다.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인 것들을 진심으로  
구성원 모두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화와 롯데의 팬들에 관한 이야기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11월에 총학생회, 교수의회, 노동조합 모두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정치가 그저 욕먹는 대상이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욕하는걸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욕하던 이가 그날 야구 스코어는 기억하는데 국정감사에서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전혀 모른다. 정치를 혐오한다는 것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대표자는 결국 ‘대중’이 만든다. 우리학교의 구성원 대표 역시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들이 표를 모아 선출한다. 그리고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그다음은? 대표자가 구애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다. 이들이 잘 이끌어 가는지 ‘애정’이 없다.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대표들에게 오히려 ‘비판’은 고마울 지경이고 ‘냉소’가 익숙하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일지 몰라도, ‘해보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지금 우리학교는 한국시리즈는 커녕 ‘가을야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지를 잘 판단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당장 대학구조개혁과 같이 구성원 간의 이해가 엇갈릴 사안이 산적해있다.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인 것들을 진심으로 구성원 모두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3년 연속 쫓겨한 한화 팬들처럼, 몇 년 힘들어봐야 ‘냉소’ 대신 ‘열정’이 생길 것인가. 적극적인 팬이 가득 하리라 믿는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인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이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株))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림)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